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긴축 우려 부각되며 하락

미국 8월 근원 CPI 예상치 상회하며 연준 긴축 우려 대두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인플레이션 경계감 확대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6,684.37pt (-3.26%)	806.79pt (-1.69%)	1,050.83pt (-3.61%)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346.30 원 (+2.2 원)	4.5210% (-1.9bp)	7,608.00pt (-0.67%)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29,677 억	+1,097 억	+912 억
외국인	-33,004 억	-893 억	-7,575 억
기관	-11,667 억	-304 억	+6,983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연준의 긴축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국 8월 근원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동 불안과 사우디 송유관 폐쇄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 또한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KOSPI는 3.26%, KOSDAQ은 1.69% 내렸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20.2조원, KOSDAQ은 약 5.5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약 3.3조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에서 약 1.2조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리 인상기 순이자마진 개선 전망에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수주 기대감으로 방산주가 상승했습니다. 화장품, 의류, 미디어 업종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긴축 우려에 더해 AI 속도조절론이 대두되면서 반도체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최근 강세였던 원전 업종이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서는 우리금융지주(+4.56%),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3%), 아모레퍼시픽(+3.77%)이 올랐고, SK스퀘어(-8.17%), 대우건설(-6.49%), 두산에너지(-4.30%)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